평화·인권·민주주의를 품다…영화로 만나는 DJ 정신

김대중 탄생 100주년 국제영화제

서울·나주·광주 일대서 열려
노벨평화영화상 임권택 감독
특별상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지난 16일 서울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개최된 '2024 국제평화영화제'에서 임권택 감독이 김대중 노벨평화영화상을 수상했다. 국제평화영화제 제공

세계적인 거장들의 영화를 통해 '김대중 정신'인 평화와 민주주의 가치를 알리는 영화제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2024 국제평화영화제'가 지난 16일 서울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개막한 가운데 17~18일 나주를 거쳐 19일 광주에서 폐막한다.

이번 영화제는 김대중 재단,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회, 대한민국 헌정회가 공동주최해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 신장을 목표로 제정된 상과 함께 12개국 장·단편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30여편의 다채로운 상영작을 선보이는 자리다. 전쟁과 불평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주제로 전쟁·갈등·양극화·환경 위기 속에서도 희망과 연대를 탐구하는 작품들이 영화제에서 상영된다.

앞서 16일 개막식에서 김대중 노벨 평화영화상과 특별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올해 김대중 노벨평화영화상 수상자로 임권택 감독이 선정됐고 특별상은 프랑스의 영화 기관인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 수여됐다.

임 감독은 영화 '두만강아 잘 있거라'로 데뷔해 '취화선'을 통해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거장이다. 심사를 맡은 백학순 심사위원장(김대중 학술원 원장)은 "평생에 걸친 영화작업으로 인류의 존엄과 휴머니즘,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긴 임 감독은 한국 영화의 살아있는 역사"라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특별상을 수상한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는 1936년 설립된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시네마테크로 영화 보존과 상영을 통해 국제적 문화교류와 평화를 증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17일 나주 CGV에서 킨 로치 감독이 연출한 개막작 '나의 올드 오크'가 상영됐고 전국 대학생 독립영화제에 공모한 200여 작품 중 대상 및 우수상을 받은 작품들도 선보였다.

세계적 거장 켄 로치 감독의 은퇴작인 '나의 올드 오크'는 영국 북동부의 폐광촌 주민들과 시리아 난민들의 갈등을 다룬다. 영화는 갈등 속에서 점차 피어나는 연대 의식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경이로운 고래의 세계를 소개하고 지구의 위기를 알리는 다큐멘터리 '고래와 나', 올해 헌츠페터상 수상작 '지금 가자에선', '인사이드 이란: 자유를 위한 투쟁', '가자로부터 온 목소리: 가자의 응급구조대', '가자로부터의 목소리: 가자의 어린 목격자'가 상영됐다.

18일 같은 장소에서 '사진신부', '목소리들', '이타카로 가는 길',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장편부분 수상작 '로봇 드림' 등이 관객을 찾는다. 또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당에서 '무지개 다리의 노래 라스트퀸 월선'이 특별상영된다.

19일 폐막식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 롯데시네마 충장로에서 '청년 사업가 김대중-애니툰', 임권택 감독 헌정 영상 등이 상영되며 폐막작으로는 다큐멘터리 '마리우폴에서의 20일'이 스크린에 오른다.

'마리우폴에서의 20일'은 제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이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포위된 우크라이나의 거대한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보도한 AP취재팀의 위태롭고 절박했던 20일을 다뤘다.

한편 올해로 12회를 맞은 '국제평화영화제'는 영화의 힘으로 관객들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영화제는 서울·나주·광주 등지에서 열리며 그 의미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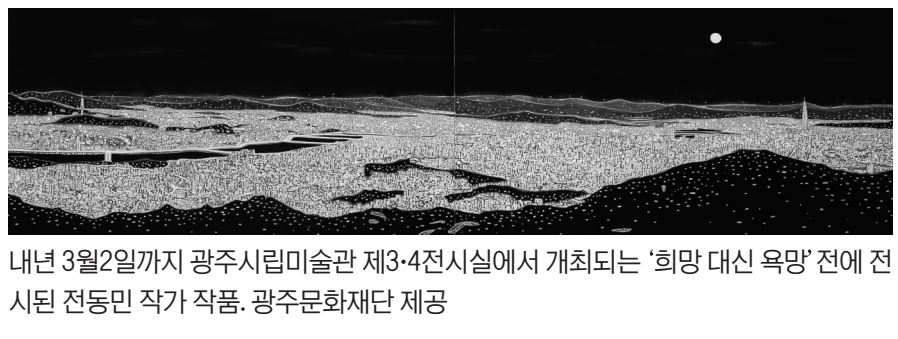
유인학 김대중 국제평화영화제 조직위원장은 "서울에서 개막식을 개최하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평화'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은 의미라는 점을 되짚었다"며 "또한 나주와 광주에서 연이어 영화제를 이어간 것은 지역소멸 위기를 초광역화로 극복하자는 취지를 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장애인·비장애인 예술 소통 특별기획전 '희망 대신 욕망'

광주형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내년 3월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장애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참여



내년 3월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제3·4전시실에서 개최되는 '희망 대신 욕망' 전에 전시된 전동민 작가 작품. 광주문화재단 제공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예술을 매개로 한 소통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는 특별전시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17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희망 대신 욕망'전이 내년 3월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제3·4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가 매년 광주문화재단을 통해 추진하는 '광주형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으로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장애예술창작센터를 조성해 시각예술분야의 장애인 작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올해 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입주작가로 활동한 양경모, 전동민, 이혜선 작가를 포함해 광주 및 타지역 장애인·비장애인 작가 총 12명의 작품을 동시에 선보인다.

첫 번째 섹션, '뜨거운 욕망: 존재 드러내기'에서는 이혜선, 기대용, 김현우(픽셀 킴), 정은혜, 유태환 작가가 고유한 조형 언어를 통해 각자의 욕망과 내면세계를 강렬하게 표출하는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섹션 '새로운 감각세계: 경험 공유하기'에서는 김은정, 전동민, 양경모 작가의 작품들이 기다린다. 이들은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나 감각적 경험을 예술로 표현해 새로운 감각세계를 관람객과 공유하고자 한다. 이들의 작업은 결핍의 서사가 아닌, 고유한 감각과 내면의 세계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경험의 산물이다. 마지막 섹션 '연대와 공존'에서는 김샨탈과 주홍의 사이프로젝트, 라움콘과 강수지·이하영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각자, 당사자성과 돌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으며, 타인을 온전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작품에 투영했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시는 문화기관의 실질적인 협업과 소통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더욱 의미 있는 전시"라며 "작가들의 작품은 '당사자성'이란 무엇인지, '상호 돌봄'이란 어떤 과정인지 질문을 던지며, 변방에서 시작된 시선으로 새로운 관계와 공존의 가능성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전시의 개막식은 19일 오후 4시에 광주시립미술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전시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누리봄 중창단의 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박찬 기자

올해 마지막 우주쇼 쌍둥이자리 유성우 관측행사 '성료'

국립광주과학관, '쌍둥이와 …'

천체망원경·쌍안경 밤하늘 관측

국립광주과학관은 지난 13일 올겨울 최대 우주쇼인 쌍둥이자리 유성우를 맞이해 기획한 '쌍둥이와 목금토성' 천체관측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소행성이 우주에 흩뿌린 잔해대를 지구가 통과하면서 나타난다. 이번 행사는 도심임에도 광공해의 영향이 적어 어둡고 시야가 넓은 영산강 수변공원 거징이쉼터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천체관측 전문가의 별자리 설명을 포함한 유성우 관측을 체험했고, 천체망원경과 쌍안경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달과 별, 목성, 금성, 토성을 직접 관측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국립광주과학관은 올해 정월대보름에 진행한 '달맞이·별맞이'를 시작으로, 추석맞이 천체관측행사, 슈퍼문 특별관측행사를 운영했고 매달 진행하는 '별빛학교'와 '밤하늘 관측대장' 전문교육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별과 과학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전문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https://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비엔날레 대표·시립미술관장' 투명 선임 촉구

광주 작가 6인 SNS 통해 서명 운동

광주에서 신임 예술공공기관장 선출을 앞두고 전문·공정성을 보장한 기관장 선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지역 작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17일 광주 예술계에 따르면 관내 활동하는 하루.K·유지원·임용현·정승원·이인성·이세현 작가가 최근 SNS를 통해 '광주비엔날레 대표와 시립미술관장 투명한 선임을 위한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폼으로 진행하는 해당 서명 양식서에는 "투명한 인사 과정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광주 미술계를 이끌어갈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요구한다"고 적혀 있다.

또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 각종 의혹과 주먹구구식 조직 운영은 광주가 얼마나 민주와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인지 자문하게 한다"며 "모집 공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해진 인사는 사라져야 한다. 대상자의 업무 경력과 평판을 철저히 검증하고 전임기간 발생했던 논란이 있는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2차 공모 끝에 사전 내정 의혹이 인 김준기 현 광주시립미술관장을 관장으로 임명했다.

김 관장의 임기는 내년 1월19일까지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의 임기는 31일까지다. 서명을 진행한 최근 2주간 시민과 예술인 300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가들은 이번주 안으로 서명안을 광주시와 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루.K 작가는 "그간 공무직인 시립미술관장은 내정 의혹이 일었던 인물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투명한 선출 과정 속에서 지역 예술계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인물이 뽑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서명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